

# “지금, 담대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민중복당 유성업 전 의원,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  
민생경제·생명생태·문화예술 등 4대 비전 제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유성업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의 도지사 도전은 지난 2006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이다.

유 전 의원은 28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은 발전과 성장은 커녕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은 담대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본인의 출마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엄중한 시기에 만일 낙후된 전북, 성운 이순신, 백범 김구 같은 선각자가 전북도지사에 출마한다면, 이들은 전박의 현실을 마주하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을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 애썼을 밤을 고민해왔을”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경제, ▲생명생태 ▲문화예술, ▲미래준비를 전북도가 나아가야 할 4대 비전으로 제시하고 “전북이 당면한 위기를 딛고 더 큰 기회와 번영의 땅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만들 10대 핵심과제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 이뤄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유 전 의원은 “가용 예산과 행정력을 켜며 시대의 기후변화의 불확실

성에 대비해 도민의 민생안정과 일자리를 지키는데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일성했다.

이와 함께, ▲민생, ▲농업 ▲문화예술관광 ▲공공인프라, ▲미래커리어, ▲복지, ▲교육 ▲자치분권, ▲도정혁신, ▲새만금 등 부문별로 추구해 나갈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본인 철학과 가치로서 강조해온 ‘문화와 생명’을 앞서 거론하고,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서의 미래까지 방향성과 신성장동력화를 제시했다.

또한, 지방정부로서의 책임성과 자치분권을 특히 강조하며, 자강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그동안 거론돼 온 메가시티나 특별자치도 등과 다른 자신이 오랫동안 구상해 온 내용”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쟁점 이슈화를 예고했다.

유 전 의원은 “전북의 오랜 침체와 위기는 다름 아닌 전라과 리더십의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제대로 된 발전전략이 기초한 담대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처방했다

그러면서 “저 유성업은 각 부처 장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유성업 전 의원이 28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관·국회의원들은 물론, 대법관과도 맞짱 뜰 수 있는 배경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며 “담대한 행동으로 담대한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유 전 의원은 “중앙과 지방, 행정과 정치를 고루 경험한 유일한 후보로서 단단하게 준비된 최적의 도지사 후보임을 강조하고, “시대에 맞는 발전전략을 인식하고 구사하는 도지사, ‘존재감 있고, 실행력

강한 도지사로서 전북도민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희망을 안겨드리겠다”며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전주교와 서울대 의교학과를 졸업하고, 제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내무부와 전북도청 등 17년간 공직에 종사한 후 43세인 2002년 민선3기 정읍시장에 당선되면서 정치의 길로 들어섰고, 18·19·20대 3선 국회의원과 장관급인 국회 교문위원회장을 역임했다. /유호상 기자

## “공정인사 시스템으로 공직사회에 신바람”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공정인사 시스템으로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시장에 당선된다면 능력과 연공서열을 적절히 인배한 예측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예비후보는 “일정 비율로 근무평정 상위에 오른 직원들에게 승진기회를 주고, 업무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과감히 발탁하며, 이외에도 고참공무원을 배려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가족 측근 외부인사 등의 인사행태를 철저히 배제하고, 잡음 없는

클린인사를 실현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동기 부여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시장 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이고, 직원들이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책임은 시장이 지더라도 성과에 따른 포상 및 인사는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공무원들이 휴일에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직원들의 삶의 질도 중요한 만큼 특별휴가제 등 직원들의 워라벨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예비후보는 “전임 시장 시절 주요부서에 있던 직원들을 무조건 한직으로 내보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공무원들과 적극 소통하고, 시장운영의 동반자로서 존중하면서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이돈승 완주군수 예비후보

이돈승 완주군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오픈 자족도시’ 위상에 걸맞은 공공시설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돈승 예비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완주군은 주민수요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증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시설물의 일원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관리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담보되고, 이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예비후보는 “당선 직후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시설관리공단 설립 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시설물에는 관리사업 및 시설물 대상, 조직 구성 등이 담겨 있다”며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시설물의 일원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역 결과 설립 타당성이 인정되면, 주민공청회와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논의회의와 협의 및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다만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업무 증폭화, 예산소요 등의 논란에 관련해서는 주민과 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칠 것”을 천명했다. /유호상 기자

## 6·1 지방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1 김진명 전 전북도의원이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 새싹농부 천춘진 예비후보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최고의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 새싹농부 천춘진 예비후보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최고의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금융소의 계층 가계 건전성 제고

민중이원택 의원, 서민금융 기능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농가 등 금융소의 계층의 가계 건전성 제고와 서민금융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8일 농가 등 금융소의 계층의 서민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 농축력, 수형, 신행 등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으며, 해당 법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2023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5%,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농·어민의 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 되고 있으며, 농·어민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또, 일몰기한이 도래해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서민금융기관의 고객 이탈로 인해 서민금융이 악화하고,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

조합 등 서민금융기관 보호와 서민금융강화를 위해 개정안은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02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분리과세 시기도 순연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민·서민의 저축의욕 고취와 사회·문화·경제적 지위 강화를 필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농·어촌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8조원 시대 열어본 경험으로 전주경제 살릴 것”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더 견고해진 예산장벽, 중앙인맥 있는 시장 필요”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28일 “예산전문가인 우범기를 선택하면, 국가예산 확보로 전주가 크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전주부의 예산을 누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지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우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힘에 정권을 넘겨준 전북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장벽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이 장벽을 뛰어넘을 유일한 후보는 기재부에서 30여 년 다양한 인맥을 쌓아온 우범기가 맞다”고 어필했다.

행정고시(35회) 합격 후 기획예산처 재정분석과장 통계청 기획조정관,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등을 지낸 우 후보는 국가공인 예산전문가다.

그는 또, 전북 정부부처로서 일하면서 중앙관계의 인맥을 풀가동 정부 부처를 실력해 2년 연속 전북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고, 대기업 투자유치도 이뤄냈다.

광주 경제부시장 시절엔 광주형 일자리를 태동시켜 주목 받은 바 있다.

우범기 후보는 “과거 기재부에 있을 때 전주시를 돕고 싶어도 그림 자체가

작았다. 사업 규모를 키우면 예산을 받기 어렵고 큰 성과를 얻을 수 없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끌어와 획기적인 전주대변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역 명품환승센터, 첫 마중길 지하도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팔복동산단투자 등 대기업 유치를 포함한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겠다”고도 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역사무장 첫 번째로 통과하고 후보 등록과 함께 6·1지선 레이스에 돌입한 우 후보는 “누가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고 누가 더 시민들에게 겸손하고 누가 더 깨끗한 사람인지, 전주시민이 면접관이 돼 전주발전 적 임자를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28일 “청년일자리”의 하나로 전주형 청년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전주형 청년일자리 주택”은 청년가구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전주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 19~39세 청년이다.

지원금액은 33㎡ 규모 주택은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을 지원하고, 85㎡ 규모는 임대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5만원을 지원한다. /김윤상 기자

## “국가 호국보훈 테마파크 조성할 것”

한완수 임실군수 출마예정자

한완수 임실군수 출마예정자(전북도의원, 더불어민주당)가 28일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해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현충탑을 참배했다.

한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들의 국립묘지가 임실에 있다는 것에 대해 군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면서 “임실호국원이 대한민국 대표적인 보훈시설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호국원이 영령들에 대한

추모 시설을 넘어 호국·보훈을 테마로 하는 ‘국가 호국보훈 테마파크’로 성장시켜달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임실호국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한완수 의원은 “임실호국원은 연간 50만명 이상의 참배객들이 찾고 있지만, 지역과 연계되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화해봉사의 생화를 공급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유호상 기자

##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받아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함께 녹색도시 전주 실현에도 보탬”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지훈 예비후보가 자가용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어르신의 편안한 이동권 보장과 함께 교통약자와 해소를 위해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발표한 노인 정책공약은 그동안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추진한 ‘전주누누기’를 통해 들었던 어르신들의 다양한 애로·건의 사항 가운데 최우선으로 개선 및 지원해야 할 내용을 적극 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어르신들의 외부활동에 따른 사회적 접근성이 کم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부담으로 이동에 제한을 받는 어르신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평소 소신이 반영된 정책이기도 하다.

경제활동이 없는 어르신의 경우 교통비가 부담돼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만큼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이를 해소, 어르신의 이동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효과와 함께 온실가스 절감 등으로 녹색도시 전주를 실현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조지훈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우선 자가용 없는 어르신부터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조지훈 예비후보는 “어르신이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후대의 의무라며 “특히, 어르신의 이동권은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일단 자기유이 없는 어르신부터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추진할 뒤 점차 확대해 어르신 모두가 이를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